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3면
"당원과 함께하는 신뢰정치 구현 힘 보탤 것"

전주매일

2024년 7월 16일 화요일 (음 6월 11일) 제354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15일 오후 2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높은 보건의료 정책 발굴과 추진을 위해 민-관-연 21개 기관과 '다 함께 보건의료 얼라이언스' 협약을 체결하고 3개 분과 운영을 시작하는 출범식이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 등 관계자들이 출범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맞춤형 보건의료 정책 발굴 '시동'

전북자치도 '다함께 보건의료 얼라이언스' 출범

민·관·연 21개 기관과 협약 맺고 3개 분과 본격 운영
실효성 높은 정책 발굴·추진… 도민 건강권 향상 기대
김관영 도지사 "긴밀 협업해 지역 살리는 아젠다 발굴"

전북특별자치도는 보건단체와 책임의료기관 등 민·관·연 기관들과 함께 한정된 도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도민 수요에 맞는 맞춤형 보건의료 정책 등을 발굴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전북자치도는 15일 오후 2시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높은 보건의료 정책 발굴과 추진을 위해 민-관-연 21개 기관과 '다함께 보건의료 얼라이언스' 협약을 체결하고 3개 분과 운영을 시작하는 출범식을 개최했다.

'다함께 보건의료 얼라이언스'는 대내외 환경변화로 지역의 보건의료 생태계가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의료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현실에 맞는 실효성 높은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구성된 것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문승우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진윤 도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장과 14개 시·군,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 전북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 4개소, 의사회 등 보건단체 8개소, 전북대병원·원광대병원·예수병원 등 도내 책임의료기관 6개소와 언론인 등 21개 기관장들과 분과위원 및 각 기관 실무자 등 100여명 참석했다.

다함께 보건의료 얼라이언스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보건기관 기능 개선, △공공의료 강화, △의료자원 활성화 등 3개 분과로 구성·운영하며, 각 분과별로 10여명 정도의 위원들이 위촉돼 의제 발굴을 이끌어가게 된다.

분과 운영은 지역의 문제점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중점 의제를 선정하고 7월부터 분과별로 월 1~2회정도 회의를 개최, 오는 12월까지 구체적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다함께 보건의료 얼라이언스'를 통해 정부주도형 보건의료 정책에서 벗어나 전북자치도만의 색깔을 입히고 규제 개선, 특례 반영, 국책사업과 자체 신규사업 발굴 등 분야를 한정하지 않고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필수의료 기피현상 고착화 등으로 지역의료 상황이 심각하다."며 "우리 지역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탄탄한 보건의료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것은 도민들의 건강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며, "도와 시군, 전문가, 단체 등이 긴밀하게 협업해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전북자치도의 아젠다를 발굴, 정부 보건정책 방향도 이끄는 테스트 베드가 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오늘 전북자치도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 개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16일 제12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회기인 제412회 임시회를 열고 10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의안 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먼저, 16일 오후 2시에는 개회식에 이어 지역 현안 및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이어 '지방소멸 가속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역주민의 동등한 보호를 위한 지방재정법 재개정 촉구 건의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회기는 상임위원회 개편 이후 처음 열리는 회기로, 오는 17일부터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등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민생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의정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완주군, 7월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정부, 대통령 재가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전북자치도, 중앙합동조사 등 거쳐 추가 선포 노력

전북자치도 완주군이 7월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1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7월 8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전국 5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 도내에서는 완주군이 포함됐다.

이는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도-시군-유관기관과 함께 피해조사를 철저히 진행해 단 한 건의 피해도 누락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특별재난 선포 지역에서 제외된 다른 지역도 피해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해 원인, 시설물 파손 여부 등에 대한 분석 후 복구방안을 조기에 마련해 복구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아울러, 피해주민에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윤동욱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정부의 발 빠른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피해 지역의 일상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향후 행정조치에 속도를 내겠다. 피해 원인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 호우 피해가 발생한 다른 지역에서도 신속히 조사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도록 건의할 것이며, 수해 주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기까지 김관영 도지사, 안호영 국회의원, 유의식 의장을 비롯한 완주군의회 의원과 도의원 등 관계기관들의 노력이 있었다"며 "수해복구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준 전국의 지자체, 유관기관과 주민,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집중호우로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매몰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재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완주=염재복 기자

전주 XR·메타버스 얼라이언스 프로젝트 그룹 출범

민·관 협력체계 구축

전주시와 공공기관, 기업들이 미래 신산업으로 급부상한 XR(가상융합기술)과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영로)은 15일 전북메타버스지원센터에서 전북·전주 XR·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2024 전북·전주 XR·메타버스 산업 얼라이언스 프로젝트 그룹 출범식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XR·메타버스 신기술 융합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특화형 기획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또, 메타버스 산업 육성거점공간인 'G타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자리도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얼라이언스 참여기업 15개사와 대학, 병원, 기관 등은 △지역관광 △지역 현안 해결 △공공라이프 등 5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사업화 전략 수립 및 고도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재훈 기자

고향사랑기부제로
남원을 응원해주세요
남원시에 기부하고 세액공제 및 답례품 혜택을 받아보세요!

기부 혜택
기부액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기부자의 현주소 제외하고 전국 지자체 기부 가능
기부액 30% 이내 답례품 제공
지역특산품, 남원사랑상품권

기부 방법
온라인 기부
고향사랑 e음 시스템
(http://ilovegohyang.go.kr)
대면 기부
농협창구 방문 신청(전국 5,900개 지점 가능)

피어나다 남원